

이래도 대중교통?... 택시타기 겁난다

만취 女 승객 끌고가 성폭행 손님 분실 스마트폰 팔아먹고 운전중 DMB 시청 '아슬아슬' 승·하차 거부, 부당요금 여전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옹돈으로 팔려 가는 택시 기사. 만취한 손님을 모델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택시 기사.

여기에서 승·하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다는 시민 불편 전화도 끊이지 않는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여전하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라는 택시를 타기가 겁난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

▷택시 범죄 잇따라, 무서워=광주 서부경찰은 27일 만취한 여승객을 성

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허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5일 밤 11시40분께 광주 시 서구 금호동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탄 A(여·29)씨를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에 탄 택시 번호를 적어놓은 친구의 진술에 따라 허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2월에도 강제추행 등 전과 3범인 택시기사 강모(48)씨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승객 B(여·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돌

려 주기는 커녕, '옹돈 벌이'로 여겨 팔아 버리는 택시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일부 장물업자들은 아예 이를 상대로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경찰은 지난 14일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치운 김모(41)씨 등 택시기사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스마트폰 매매가 많이 이뤄져 돈 벌기가 쉽다는 말이 퍼지면서 광주로 원정오는 장물업자들이 생겨날 정도"라고 말했다. 만취한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 현금출금기인 택시기사도 최근 서부경찰에 검거됐다.

▷DMB 시청 승객 불안=늦은 밤, 택시를 타는 승객들의 경우 기사들의 DMB 시청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신호 대기를 하면서 DMB로 나오는 드라마·뉴스·스포츠 등에 신경을 쓰다 신호를 놓치면서 뒤차들의 경적소리에 놀라 황급히 움직이거나 결

눈질로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운전중 DMB 시청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불구, 현재로서는 단속 법규가 없는 형편으로, 경찰 관계자는 "DMB 시청을 두고 단속 여부를 문의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승객 불편 신고 잇따라=이러다보니 택시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광주시는 지난 한 해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택시의 경우 모두 1212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전 전국 서부경찰에 검거됐다.

▷개인택시(478건)보다 법인택시(734건)가 많았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김응권 교과부 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 논란

목포해양대에... 교수들 "즉각 철회하라"

현직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국립대 총장후보자 공모에 응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목포해양대 제6대 총장후보자 공모 접수를 지난 18일부터 3일간 마감한 결과, 전 정 부에서 임명됐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 지연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김응권 차관이 총장에 응모했다.

김 차관 외에도 신상현 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비롯, 같은 대학 김갑기 해양정보통신공학과 교수·고재용 조선해양공학대학 공 교수·최민선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모두 5명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했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7일 성명을 내고 "김응권 차관이 목포해양대 총장후보자 공모에 응모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차관은 후보자 응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김 차관은 2011년 대학선진화관과 대학지원실장을 지내면서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주도해 총장직선제를 폐지, 사실상 교과부의 영향에 의해 총장후보자가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니원침 (8763) 김장두



현혈하는 나이팅게일

겨울철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27일 현혈에 나선 광주 에덴병원(병원장 허정) 의료진과 유관기관 직원 등 50여명이 줄을 서서 현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檢, 산단조성 비리의혹 임성훈 나주시장 조사

임성훈 나주시장이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27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임시장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에 임시장을 피

의사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감사원의 수사외 뇌용을 토대로 임시장이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했다. 감사원은 산단 조성 비용을 지방채 이자율(4~5%)보다 높은 이자(10%)로 증권사로부터 끌어들이 뒤 77억원의 수수료를 자문회사에 지급하고, 시행사를 위해 투자보증하면서 나주

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미래산단 투자회사가 임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W사가 발행한 거액의 회사채를 사들인 경우도 파악하고 있다. 임시장 측은 30억원 상당의 신주인주권부사채(BW)를 6개월 만기로 발행했으며, 이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W사는 임시장이 실질적 사주여서

회사채 매매와 상환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미래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과 돈을 전달한 지인을 구속했다. 또 공문서를 위조해 관공개 발 신청금을 신청한 혐의로 업자를 구속하고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여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증권회사 임원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하직원 남치 살해 사건이 강도치사?

대법, 광주고법 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부하직원을 남치·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에 따른 피해자의 사인이 직실사인데 원심에서는 숨을 쉴 수 있도록 목 부분을 감지 않았다는 피고인 진술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니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광산구

한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난할 만한 동기에 비록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서 강탈한 현금을 유족에게 부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인면수심의 행동"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죄목인 강도살인이 아니라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간미수범 6년만에 잡혀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여의치 않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강도강간)로 정모(30)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당시 고등학생이던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거세게 저항하자 폭행하고 달아나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노조 탄압 중단하라”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IC 노조 촉구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 IC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제2순환도로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도로관리(주) 측에 '노조탄압중단'과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덕 IC 민주노총 노조 측은 2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이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시아도로관리 측이 지난 8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곧바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용자 측이 노조원들에게 수시로 노조가입사실을 추궁했고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 측은 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해고통보를 단행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종료로 사유로 자동해고시키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비슷한 근로조건 속에서 임단협을 전개하고 있는 소매·송입 IC와 함께 파업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훔친 귀금속 처분하려 금은방 뺏아 달미

○금은방을 털기 위해 3차례의 사전 탐사에 도주로까지 파락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30대 남성이 정작 장물을 파는 데는 어리숙해 달미.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22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의 사설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뒤 침입, 매장 진열대에 있던 수억대의 귀금속을 훔쳤다는 것.

○A씨는 범행 전 사총과 쇠파대를 준비하고 도주가 용이한 금은방을 물색한 뒤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려고 인근 금은방을 돌아다니다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향상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게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경-473호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박!**

가격안내
이웃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